

# 기술 유감

글/이종호 (건설부 해외정책과장)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며칠을 묵었다. 호텔 숙박료가 풍광(風光) 수려한 레만호 주변을 하루에 200불이나 하여 시내에서 떨어진 공항 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을 잡았는데 하루에 60불 숙박료에 아침은 공짜여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주위는 아주 시골이라 넓은 밀밭, 딸기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드문드문 울창한 숲이 한 무더기씩 잘 보존되어 있는 옆에 사일로를 가진 농가 몇 채가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새벽마다 들길을 거닐면서 보니 산책로 옆 고목에 커다랗게 불독 모양의 견두상(犬頭像)을 그려서 걸어 놓았는데 그 위에 붉은 색으로 X표를 하여 놓았다.

아무나 개를 풀어 놓거나 데리고 나와 낫선 산책인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런데 필자가 정작 놀란것은 깨끗하게 포장되긴 하였지만 시골길인데도 노면 경계석으로 자연석을 가느다랗게 2cm나 1.5cm 정도로 끊어서 5cm 정도 높이로 곱게 이어 놓았다.

그 섬세한 돌 다듬새도 다듬새였지만 다듬은 돌과 돌을 석회를 써서 감쪽같이 이어놓은 그 정성어린 이음새에는 정말 경탄하였다.

문득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어떤가. 콘크리트로 인조대리석과 비슷하

게 보이도록 바(Bar)를 만들어서 설치하여 놓는데 얼마 안가서 제법 깨끗한 걸보기와는 달리 어설피 모래와 세석(細石)이 쏟아지는 물골을 드러내 놓는다.

심지어 정부종합청사 주변의 포도(鋪道)가 그 모양인데 시골은 어떻겠는가.

도대체 배합은 어떻게 되고 양생은 어찌 되었으며 공시체(工施體) 테스트 등 그 많은 검사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필자 스스로 건설의 총 본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광화문 중앙청 부근과 종합청사 앞, 뒤, 옆 포도(鋪道)를 걸어 보라.

네모지게 콘크리트 판석을 깔아 놓았는데 밟을 때마다 달가닥 달가닥 소리가 난다. 포설(鋪設)하기 전 기초바닥을 고르게 잘 다치지 않은 까닭이리라.

우리가 드나드는 많은 건물들. 이왕 지을 바엔 어찌 그리도 허술하고 매무새가 대충대충인가. 끝마무리를 영성하고 조잡하고 적당히 처리해 버리려는 엉터리 공법의 표본은 바로 이 나라가 아닐까.

실로 통탄하여 마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술이나 솜씨가 모자라서 그런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보탑!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기술의 정화(情華)를 보아라.

불국사의 정문격인 연화교, 칠보교, 백운교, 청운교의 그 정교하고 치밀하며 짜임새 있으면서 천년 세월에도 틈하나 벌어지지 않는 저 기막힌 솜씨를 보라.

극락전을 옆으로 돌아 정면의 범영루 자하문, 안양문을 떠받치는 석축 둘레를 보라.

아! 천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경사면, 각도면이 쌓을 당시와 한치도 틀어짐, 비뚤어짐, 허물어짐이 없이 정확한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실로 놀랍지 아니한가.

석면에 가만히 귀를 대면 도란도란 온 정성을 기울여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던 옛 조상님의 숨결 소리가 들리는 듯 가슴 설레임을 금치 못한다.

석굴암, 다보탑의 솜씨를 우리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자.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지상지고(至上至高)의 예술품이니까.

최근 우리는 세계 여러나라로 진출하여 도로는 물론 빌딩, 아파트 등 닥치는대로 훌륭하게 만들어 그 까다로운 검사과정과 준공 절차를 거쳐 문자 그대로 세계만방에 우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눈을 못뜨는 사풍(砂風) 속에서.

바다를 메우고 밀림을 개척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훌륭하게 해냈었다.

많은 고통과 울분과 인내의 눈물을 삼키면서……

최근 우리는 연속하여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솜씨와 기술은 백의민족에게 내려진 천부적인 유산인 것 같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물건이나 잘 만들어 탄 나라에 팔아 자자손손 잘 먹고 살라고.

임진왜란때 멀리 일본의 구주지방 땅끝으로 끌려

간 불쌍한 우리 조상님들은 그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몸에 익힌 기예를 발휘하여 훌륭한 도공으로 변신, 지금은 전설처럼 저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일본 도예문화의 기원이 되었다.

청자, 백자의 신들린 솜씨를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이런 사연과 함께 요즘 우리 기술계를 보면 한심하여 말문이 막힌다. 재벌들의 번듯한 사옥은 모두 외국인이 와서 설계를 하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고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현해탄을 건너가 저들 나라에서 시공기술 연수를 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노릇인가. 문제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 같다.

제도적 모순을 이야기하는 기술자 세대(諸代)들도 있지만 마음만 내키면 조포도 만드는데 공사를 총감독하려는 사주님들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고, 그 밑에 줄줄이 이어진 참여하는 모든이가 잣밭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어찌 우수품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본과 비교하여 무엇이 모자라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선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은 장인정신인것 같다. 저들은 대학을 나와서도 가업을 이어 요리사가 되거나 이발사가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화이트 칼라(white color)로 자식을 키워야 부모 노릇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 도무지 기술인의 긍지나 품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의 철학이었다.

요즈음은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망치들고 비지땀 흘리며 석수장이를 하거나, 끌과 자귀로 나무를 다듬는 목수인 아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이는 드문 것 같다.

불편한 벵타이만 매어야 하는 직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우리 이런 마음가짐부터 고치기로 하자.